

『여범』의 독해 방식 연구*

김정경**

〈차례〉

1. 머리말
2. 규훈서의 독해 방식 : 상황의존적 독해
3. 『여범』의 독해 방식 : 탈상황맥락적 독해
 - 3.1. 작품 내적 요소를 통한 주제 구현
 - 3.2. 발화기원의 소거를 통한 이야기 세계의 형성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사도세자의 친모 선희궁 영빈 이 씨가 쓴 『여범』의 독해 방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규훈서 연구들이 주로 텍스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고, 이와는 다르게 텍스트의 형식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다른 규훈서들과 구별되는 『여범』 고유의 특질 및 문학사적 위상을 드러내려고 했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여범』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쓰여진 『열녀전』 및 여러 규훈서의 서술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내어, 이 규훈서들이 독해되는 방식을 체계화 했다. 그 결과 이 규훈서들에서는 인물을 둘러싼 사건이 보편적 도덕 원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재현되며, 따라서 독자들은 텍스트 외적 요인

* 이 논문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과제번호 327-2011-1- A00369)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서강대학교

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다.

3장에서는 『여범』의 서술 방식 또는 독해 방식이 전 장에서 살펴본 규훈서와 동일하거나 물음의 해답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 『여범』은 주석이나 논평 대신 텍스트 내적인 구조와 이야기 세계 내부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입전 인물들에 대한 규범적 해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규훈서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독해될 수 있는 텍스트임을 알았다.

결론적으로 『여범』에는 한문 텍스트를 읽고 쓰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한글 텍스트를 읽고 쓰는 방식, 즉 탈맥락적인 독해방식이 새롭게 적용되었으며, 이 두 가지 방식의 대화적 상황은 전자의 방식이 지배적이던 체계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어: 『여범』, 『열녀전』, 규훈서, 상황의존적 독해, 탈상황맥락적 독해, 상대높임법, 발화기원, 다성성

1. 머리말

본고는 사도세자의 친모 선희궁 영빈 이 씨(映嬪李氏, ?~1764)가 쓴 『여범(女範)』의 독해 방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범』은 중국의 『열녀전』¹⁾을 거의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등장인물 123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88명이 『고열녀전』²⁾, 『고금열녀전』³⁾, 『회

1) 『열녀전』은 유교적 여성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여훈서라고 할 수 있다. 김연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58~59쪽.

2) 유향이 지은 『열녀전』에 편찬자 미상의 『속열녀전』 1권을 합한 것을 『고열녀전』이라고 한다. 『속열녀전』이 추가된 『고열녀전』도 일반적으로 유향의 『열녀전』으로 통용되고 있다. 위의 글, 58쪽 참조.

3) 『고금열녀전』은 明代 성조 1년(1403) 인효문황후의 칭에 의해 해진(解縉) 등이 편

도열녀전』에 수록된 사례들이고, 나머지 역시 이들 열녀전의 영향을 받은 『여범첩록』과 중국의 역대 역사서를 참고한 것이다.⁴⁾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여범』이 이처럼 중국의 열녀전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리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범』의 이와 같은 특징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여범이 유향의 『열녀전』을 그대로 인용했다고는 하지만 서술자가 의식적·무의식적으로 개입하여 변형한 부분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이 『여범』을 독해하는 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해명하려는 것이다.

『여범』⁵⁾은 정확한 간행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이 씨가 영빈으로 봉해진 1730년(영조 6)부터 생을 마감하는 1764년(영조 40)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⁶⁾ 영정조 때에는 『여범』을 비롯한 규훈서의 간행 및 중간사업이 활발했는데, 『오륜행실도』 『어제내훈』 『여사서언해』 등이 대표적이다.⁷⁾ 이에 본고에서는 『여범』과 『여사서언해』 『어제내훈』 『규합총서』 『오륜행실도』 등 영정조대에 편찬된 이들 규훈서 그리고 『여범』이 가장

찬한 것으로, 이 책의 편자는 『열녀전』의 내용을 모두 수용하되 열녀전의 내용을 삭제하였다. 『고금열녀전』은 한대 이후 원·명대에 이르기까지 각 사서에 나타난 여성열녀전을 추가한 열녀전의 확장판이라 할 수 있다. 『여범』은 한나라 이후의 여성들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유향의 『열녀전』보다는 『고금열녀전』을 참고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녀전』과 함께, 『송사』 『명사』 『원사』 등의 기록도 함께 참고했다고 볼 수 있다.

- 4) 김연순, 앞의 글, 162쪽.
- 5) 본고에서는 1977년 대제각 영인판과 형설출판사에서 나온 『여범』(소재영 역주, 1981) 두 권을 기본 텍스트로하여 논의를 진행했다.
- 6) 친필본은 현재 일본 동경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 7) 영정조 때에는 『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등 이른바 행실도류 언해본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번역되어 1726년(영조 2)부터 1730년에 이르기까지 각도 영감에서 간행되었다. 1797년(정조21)에는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편하여 새로운 번역과 체제로 『오륜행실도』를 간행함으로써, 유교 윤리 구현을 위한 교화서인 행실도류 문헌의 간행이 완결되었다. 또한 영조조에 『내훈』과 『소학언해』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어 새로 편찬되었다. 이들은 흔히 『어제내훈』 『어제소학언해』로 불리어 앞 시기의 책과 구별되는데, 1737년(영조 13)과 1744년(영조 20)에 각각 간행되었다. 『여사서언해』는 1737년(영조 13)에 간행되었다. 이호권,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 103~104쪽.

많이 참조한 『열녀전』을 함께 비교 검토하여 이들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내용 중심의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작품의 구성 또는 형식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것이며, 본고에서는 이를 통해 『여범』을 동시대 고전문학 작품과 동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규훈서 연구는 그것이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조선시대 유교적 여성상을 형성하고자 한 노력”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문헌들을 검토하여 당대 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자아상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여기에 조선에서 간행된 규훈서들이 전한(前漢)과 후한(後漢)시대에 나온 책 『예기(禮記)』와 『내적』, 『열녀전』, 『여계』 등 세 가지 책 속에 담긴 전범 여훈서들의 변주라는 사실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조선시대 규훈서 간의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에 주목하게 했으며, 중국의 열녀전들에서 추구하는 여성상과 조선의 여성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⁹⁾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여범』에 대한 기존 논의들도 이러한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여범』이 우리나라 여성 교육서에서는 잘 볼 수 없던 “현녀, 변녀, 문녀, 무녀” 등의 항목을 둔 것으로 미루어 다른 규훈서들에 비해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며,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면에서 다른 규훈서들과 변별된다는 윤분희의 연구,¹⁰⁾ 그리고 사도세자의 죽음과 여범 편찬의 상관관계를 다루면서, 사도세자의 죽음에 영빈이 관여한 것은 영빈이 유교 이념을 철저히 내면화한 결과이며, 『여범』은 이를 토대로 편찬된 것이라는 최혜진의 연구¹¹⁾가 『여범』의 개별적인 특징에 초점을

8) 김연순, 『조선후기 사대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8권 1호, 2006, 27쪽.

9) 김연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50쪽.

10) 윤분희, 『규훈서 『여범』 연구』, 『여성문학연구』 11, 2004, 319~345쪽; 최혜진, 『『여범』의 여성주의적 독해-작가와 서술의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3집 1호, 2004, 41~64쪽.

11) 최혜진, 『여성 영웅의 서사적 전개-여범』, 『규훈문학 연구』, 역락, 2004, 125~166쪽.

맞추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여범』의 개별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춘 위의 논의들을 포함하여 조선시대의 이상적 여성상을 규명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텍스트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고, 이와는 다르게 텍스트의 형식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동일한 인물의 이야기가 어떠한 순서와 방식으로 기술되는가, 서술자는 등장인물 또는 독자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등의 문제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다른 규훈서들과 구별되는 『여범』 고유의 특질 및 문학사적 위상을 드러내려고 한다.

2. 규훈서의 독해 방식 : 상황의존적 독해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범』이 참조한 대표적인 텍스트로는 중국의 『열녀전』이 있으며, 이와 동시대에 간행되거나 쓰여진 규훈서로는 『여사서언해』에 실린 『여범첩록』과 『어제내훈』 『규합총서』 『오륜행실도』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여범』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쓰여진 『열녀전』 및 이들 규훈서의 서술상에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내어, 이 규훈서들이 독해되는 방식을 체계화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인물의 이야기가 각각의 규훈서들에서 서술되는 방식을 검토하려고 한다. 한 권의 규훈서에 여러 유형의 인물이나 행위 규범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규훈서의 대부분 항목들은 대체로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¹²⁾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여범』 『열녀전』 『여범첩

12) 다만 이와 같은 분류체계에서 나타나는 유의미한 변화 혹은 규훈서들간의 차이점은 여성 전기집의 형태를 띠는 『여범』에서 정녀와 열녀의 수가 전체 123명 가운데 6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향의 『열녀전』에서 정녀와 열녀가 차지하는 비중과 비교해 볼 때 조선조에서는 주로 여성의烈을 강조하고 일상화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의 이야기가 수용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하듯 조선 후기에 列女傳이 烈女傳으로 변화했음을 분류된 항목에 제시된 이야기의 편수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이다.

록』 『어제내훈』 모두에 실려 있는 ‘제나라 전직의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여범』 『오률행실도』 『규합총서』에 실려 있는 ‘임해 백성의 아내 이야기’를 예로 들어 이들 규훈서의 구성 방식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열녀전』부터 살펴보겠다.

齊田稷母

①齊田稷子母也. 田稷子相齊. 受下吏之貨金百鎰, 以遺其母. 母曰: “子爲相三年矣. 祿未嘗多若此也. 豈脩士大夫之費哉? 安所得此?” 對曰: “誠受之于下.” 其母曰: “吾聞, ‘士脩身潔行, 不爲苟得. 竭情盡實, 不行詐僞. 非義之事, 不計於心. 非理之利, 不入于家. 言行若一, 情貌相副.’……②君子謂: “稷母廉而有化, 詩曰: ‘彼君子兮, 不素殮兮.’ 無功而食祿, 不爲也. 況於受金乎!”

③頌曰: “田稷之母, 廉潔正直. 責子受金, 以爲不德. 忠孝之事, 盡財竭力. 君子受祿, 終不素食.”¹³⁾

위의 인용은 『열녀전』 가운데 「모의전」 ‘제전직모’의 일부다. 『열녀전』은 규훈서 서술의 한 전형을 이루었다고 평가 받는데, 그 형식이란 열전의 기술 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본문에 해당하는 傳記(①), 군자의 논평(②), 頌(③)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한다.¹⁴⁾ 전기(①)는 인물의 일화, 군자의 논평(②)은 “君子曰” 또는 “君子謂”로 시작되는 “사평 즉 역사가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평”¹⁵⁾ 그리고 송(③)¹⁶⁾은 인물의 행적을 찬양하

13) 유향, 이숙인 역, 『열녀전』, 예문서원, 1996, 97~99쪽.

14) 김연순, 앞의 글, 62쪽.

15) 김경미, 「『열녀전』의 보급과 전개」, 『한국문화연구』 13, 2007, 58쪽.

16) 송이란 성대한 덕을 찬미하여 그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유향은 『문심조룡』에서 『시경』의 ‘송’은 왕실이나 선조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로, ‘신에게 고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대로 내려오면서 단지 개인의 훈공과 공적을 찬양하는데 그치고, ‘신에게 고한다’는 ‘송’의 본질은 변화했다고 평하고 있다. 유향, 성기옥 역, 『문심조룡』,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0, 63쪽.

는 노래이다. 군자의 논평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쓴 기사에 대한 평이나 찬을 말하는 것으로¹⁷⁾ 본문에 대한 규범적 해석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송 역시 인물의 ‘성덕(盛德)’이나 ‘성공(成功)’을 칭송하는 것으로 논찬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요컨대 『열녀전』은 “도입부-전개부-평결부(논찬)”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기』 열전과 형식적인 면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송’이 인물마다 제시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논찬을 담고 있는 ‘사전(史傳)’ 또는 ‘열전(列傳)’의 형식은 중국의 역사서술 방식 가운데 하나인 ‘역사기술’적 전통에 대응되는데¹⁸⁾, 이 입장에서 있는 역사는 일단 과거가 객관화되면 선악의 양식 및 인간관계의 법칙은 자명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역사의 의미는 잘 조직된 역사 서사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이다.¹⁹⁾ 그러므로 이러한 서사의 말미에 제시되는 사관의 논찬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역사의 의미를 확인 또는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된 인물의 이야기는 인간관계의 법칙 또는 역사의 의미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그에 대한 규범적 해석은 논찬을 통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열녀전』에 논찬과 더불어 송까지도 빠짐없이 기술된 것은 제시된 행적에 대한 규범적 해석을 거듭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독자들은 『열녀전』의 이야기를 서술자의 논평과 송의 관점에 따라서 읽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열녀전』은 기존의 사전 또는 열전 형식의 도입부와 전개부에 해당하는 傳記(①),

17) 광정식, 『열전 양식의 구성적 특질에 관한 연구』, 『문화전통논집』 제3집,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5, 15쪽.

18) 실존 인물에 대한 역사 기술적 접근법은 중국의 첫 번째 편년체 역사서 『좌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좌전』은 연대기의 기록에 덧붙인 일련의 독립적인 짧은 서사 단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서사 단편들은 경전 기록 이면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구체화시킴으로써 경전의 개개의 기록들을 설명해준다. 실존인물에 대한 역사 기술적 접근법은 해석보다는 서술 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어떤 진리를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 과거의 실재를 그 모든 특징과 함께 표현하는 것이다. 루샤오핑,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역,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99~100쪽.

19) 위의 책, 100쪽.

그리고 평결부에 해당하는 군자의 논평(②)과 頌(③, 평결부)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②와 ③이 ①의 의미를 확정하고 보충하는 방식으로 독해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는 『여사서』에 실린 『여범첩록』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겠다. 아래 인용은 『여범첩록』 ‘母儀篇’에 실려 있는 한나라 준불의의 어머니와 제나라 재상 전직의 어머니의 이야기이다. 『여범첩록』 언해본에는 한문 원문이 모두 끝난 뒤에 언해문에 실려있는데, 아래의 인용은 언해문만을 가져온 것이다.

『여사서』, 『여범첩록』, 『모의편』

不疑京에尹하야 형벌을 어그러히 하고 衆을 살으니 어디 다 慈母의 仁하미오 田稷이 정승이 되야 金을 도로 주고 罪를 기드리니 卓하다 孀親의 訓이며

역주) 漢준 不疑 京兆尹이 되야 형벌을 만히 하면 母 | 노하여 밥을 먹디 아니하고 全活이 만하면 母 | 깃거하는 고로 不疑 | 官의 居함에 仁하고 殘티 아니하니 母의 教를 遵호미오 田稷이 齊에 相하야 金을 바다 母의 게 보낸 대 母 | 도로 보내고 그 貪함을 責하니 稷이 王의게 罪를 기드리거늘 王이 赦하야 尺楮내 賢臣이 되니라

위의 인용문에서 처음에 밑줄 친 부분은 원문의 “田稷爲相, 反金待罪, 卓矣孀親之訓” 14자를 언해한 것이다. 그리고 아래 문단은 이 본문의 주석에 해당한다. 사실, 전직이 정승이 되어 금을 도로 주고 벌을 청한 것은 흠어머니의 교훈이 탁월하기 때문이라는 본문만을 읽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 아래 주석의 내용 즉 전직이 재상이 되어 금을 받아 어머니에게 보냈더니, 어머니가 이를 되돌려 보내면서 아들의 욕심을 꾸짖자, 전직이 왕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죄를 청하였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본문의 주제를 온전히 알아차릴 수 있다. 독자들은 이 이야기가 유향의 『열녀전』 또는 『한시외전』 등에 실려 있으므로, 이

책들을 통해 전직의 이야기를 알고 있거나, 각주를 통해 보충된 내용을 읽고 난 뒤에야 “田稷이 정승이 되어 金을 도로 주고 罪를 기다리니 卓하다 孀親의 訓이며”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여범첩록』은 원문과 그에 대한 주석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원문이 매우 함축적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주석을 읽어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여범첩록』의 이러한 방식은 중국의 역사 기술 방식 가운데 하나인 주석적 전통을 따른 것이다. 주석적 전통은 서사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이해되기 쉬운 것이 아니라 기호의 해석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주석을 통해 텍스트의 의도와 역사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²⁰⁾ 『여범첩록』 역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주석을 꼭 필요로 하는 텍스트라는 면에서 주석적 전통에 속한다.

아래 인용문은 『어제내훈』의 일부이다. 『어제내훈』의 특징은 인물의 예화가 제시되기에 앞서 그에 대한 규범적 설명이 각 장의 앞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시녀교애닐오딘 즈식을길오딘 신고흐며브즈런이 흐야그성납흠을브람은 선
조를니으며가문을니으며죽은니를보내며사니를봉양 흐야그소임이지똥고지
며멘일이쉽디아니 흐니만일 ㄹ치디아니 흐면엇뎃더러덤을면 흐리오... 제뿃을
쫓지마라 잠싼종 즈흐거든 믄득엄속 흐며그악을뎃뎃디마라 흐면니러나매 믄득틸
찌니라 아히허물 이쇼미다어 미길움이니 길러이롬애니 르면비록 뉘웃츠나이 미느
즈라 즈식의불 쫓흠이 실로어 미게 미엿느 니어미어 어미어 감히 그허물 을스 양 흐랴.

.....

제정승던직직아랫사름의금빅일을바다어미를준대어미닐오디아들이정승되
연디삼년이로되늑이일즉이갓티하디못 흐더니 엇디스 대부 의준 거서 리오 어디가
이를어든 다디 흐야 골오딘 진실 로아 랫사름 의 게 바도 이다 어미 닐오 디 나 는 드 로 니

20) 루샤오핑, 앞의 책, 100쪽.

식몸을닷으며형실을조히호야구차히어듬을아니하며정을다하며실을다호야거
 죽일을아니호야의아닌일을모음애혜디아니하며니아닌느를집의드리디아니홀
 씨니이제님금이벼슬을베퍼써너를디접호시며두터온눅으로써너를주시느니맛
 당히힘을다하며을다호야통성저으며밋비호야소기웁디아니하며청념하며조호
 며공정호음으로써그님금을갑스을씨어늘이제네이과상반호니님의신해되여통
 성티아니흠이이사름의즈식되여효도티아니흠이라21)

『어제내훈』에서 전직의 이야기는 「부부장」 서두 부분에서 『여교』 『방
 씨여교』 『안씨가훈』의 말을 인용한 다음에 ‘정태중의 부인 후씨’, ‘여형공
 의 부인 선원’, ‘초나라 장왕의 부인 변희’, ‘소 월희’, ‘후한 현종의 마황후’
 등의 예에 이어 제시된다. 이처럼 『어제내훈』은 각 장의 앞부분에서 여러
 규훈서들의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사례로 인물의 일화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에 제시되는 사례들이 무엇에 관
 한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서, 독자들은 앞부분에 기술된 설명을
 토대로 전직의 이야기를 해석하면 된다.

다음에 제시될 예문은 『여범』과 동시대에 간행된 『오륜행실도』의 일부
 이다.

(권3 열녀도 貞婦淸風) 왕당부는 송나라 남희 사름의 체니 송이 망홀 쟈
 에 그 식부모와 지아비 다 도적의게 잡히어 죽으니 도적의 당슈 덩부의 고
 으믈 보고 겁박호려 호니 덩뷔 통곡호고 죽으려 호대 도적이 사로잡힌 겨집
 들로 호여곰 듀야로 디희니 덩뷔 속여 곶오디 식부모와 지아비 죽은디 거상
 을 아니 닙으면 이는 하늘을 모로미라 어디 빠리오 원컨대 거상을 닙어 탈
 상 후에 너를 조츠려니와 내 말을 좃지 아니면 므츄내 죽으리라 호대 도적
 이 죽을가 저허 아디 허락호디 디희기를 더욱 엄호게 호고 인호야 제나라호
 로 드려갈 식 청풍녕에 니르러 덩쥐 직희 사름이 업슬 쟈를 타서 손가락을

21) 김신연, 『어제내훈』, 『조선시대의 규범서』, 민속원, 2000, 63~64쪽.

깨뜨려 피를 내어 돌에 글을 쓰고 남다히를 브라며 통곡하고 인하여 절벽아래 썩러져 죽으니 그 후에 글씨 쓴 피 돌속으로 스몯 저저 다 돌이 되엿다가 비 올 적이면 피 도로 소사나 처음과 굿더라 원나라 적의 정표하여 덩뵤라 하고 비를 세워 제하고 그 녁일을 고쳐 청풍녕이라 하니라 처음 청풍은 프른 단풍이란 말이오 고친 청풍은 뭍은 브람이란 말이라²²⁾

위의 인용에 잘 드러나듯이 『오률행실도』는 군자의 논평과 송을 생략한 『열녀전』의 행적부와 거의 동일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열녀전』이 논평과 송을 통해 인물의 행적에 대한 규범적 해석을 제시하는 데 비해, 『오률행실도』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인물의 행적만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률행실도』에는 『열녀전』의 논찬과 송뿐만 아니라 『어제내훈』의 해설도, 『여범첩록』의 주석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인물의 행적을 뒷받침하거나 보충해줄 삽화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오률행실도』의 경우 그림이 함께 실려 있어 텍스트와 그림이 서로 의미를 보완하며 독해하도록 되어있는 것이다.²³⁾

『오률행실도』는 텍스트만을 두고 본다면 『열녀전』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그림이 글의 의미를 또는 글이 그림의 의미를 보완하며 읽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별된다. 『오률행실도』는 이미지가 텍스트의 주석 역할을 하거나 텍스트가 이미지의 주석 역할을 하면서 의미를 만들어가는 텍스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오률행실도』는 정형화된 삽화의 구성이 인물의 행적에 대한 규범적 해석을 제시하는 텍스트이다.

『오률행실도』가 텍스트와 함께 제시된 삽화 또는 삽화와 함께 제시된

22) 송철의 · 이현희 · 장윤희 · 황문환, 『역주 오률행실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542쪽.

23) 『행실도 열녀편 도상변화의 문화적 의미』(『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50, 2011)에서 조현우는 오률행실도의 도상이 단순히 서사 내용의 전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보충하고 확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텍스트가 주석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의미를 파악하도록 기술되었다면, 『규합총서』는 주석이 문면에 제시되지 않는 않지만, 주석을 옆두에 두고 기술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 텍스트는 제목 아래 인명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수록하는 방식이라는 면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열녀전』 『오륜행실도』 등과 유사하지만, 인물의 생애 혹은 인물에 얽힌 일화를 이야기의 방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4자로 요약하고, 한 문장으로 풀이한 것만을 신는다는 면에서 이들과 구별된다.

<널절>

왕널부

애상대시

바희 우희 시를 쓰다.²⁴⁾

위의 인용문은 『규합총서』 ‘널절’ 항목에 실린 ‘왕널부’의 내용 전문이다. ‘왕널부’라고 인물을 제시하고, ‘애상대시’의 네글자 다음에 ‘바희 우희 시를 쓰다’라는 행위를 한 문장으로 적은 것이 전부다. 사실 이것만으로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없다. 앞서 살펴본 『오륜행실도』의 내용을 떠올리고 나서야 ‘왕널부’가 도적에게 화를 입을까 두려워 손가락을 깨물어 바위 위에 글을 남기고 자결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규합총서』를 읽는 독자들은 다른 규훈서를 통해 이미 제시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 않다면, 텍스트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규합총서』는 『여범첩록』처럼 문면에 직접 주석이 달려있지는 않지만, 다른 규훈서들을 각주로 삼아야만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위에서 언급한 규훈서들은 묘사된 사건과 원리의 연결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논평의 방식 또는 주석

24) 빙허각 이 씨, 정양완 역주, 『규합총서』, 보진재, 2008, 224쪽.

의 방식을 사용하여 이들 텍스트가 꾀하는 바는 텍스트 외적인 요소들에 기대어 인물에 대해 평하거나 인물의 행위를 해석하는 것이다. 『열녀전』은 논평과 송, 『어제내훈』은 각 장의 서두부분에 인용된 중국의 문헌들, 『여범첩록』은 제시된 각주, 『오륜행실도』는 함께 실린 삽화 그리고 『규합총서』는 텍스트가 전제하고 있는 다른 규훈서들이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 독자들은 이러한 텍스트 외적 요인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요컨대 본 장에서 우리는 동일한 사건이 보편적 원리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재현되는 규훈서들, 즉 어떤 특별한 사건의 궁극적 의미가 그것이 가리키는 보편적 원리에 있음을 논평 또는 주석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들을 살펴보았다.

3. 『여범』의 독해 방식 : 탈상황맥락적 독해

앞 장에서는 보편적인 유가 원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전고라 할 중국의 고전들을 바탕으로 인물의 행적을 평가하거나 행적의 내용을 보충하는 규훈서들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여범』의 서술 방식 또는 독해 방식이 이들 규훈서와 동일한가라는 물음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아래는 『열녀전』과 유사한 양식을 가진 『여범』 「모의편」, ‘제던직모’ 전문이다.

①던직모는 제던직조의괴라②직지제를도와하리의금을일씩일을바다그모를
 준대피닐오디지정승이되어녹이이긋티만티아니호더니엇디스태우의둔거시리
 오어디가이틀어든다답호굴오디진실로아래사름의게바드이다피굴오디나느
 드로니션비는몸을닥고힝실을조희호야구차히잇디아니호고정을다호고실을다호
 야거듯거술힝티아니호고의예그른일을막음의계교티아니호고울티아닌니를집
 의드리디아니호야말슴과힝실을호굴긋티호느니인신이스군호기아들이아비섬

김곳톨디라갈력진통호여님군의명을빚드러청념호고로환이업는다라불의예지
 물은내의둘거시아니오불효의즈식은내아들이아니라③직직붓그러나가그금을
 도로보내고스스로죄를도라보내니④선왕이그죄를브리고그어미를상주니라
 (번호·밑줄 필자)

위의 인용문은 앞 장에서 검토한 『열녀전』 『어제내훈』 『여범첩록』에 실려 있는 것과 동일한 전직의 어머니 이야기다. ①은 전직의 어머니에 대한 간단한 소개 ②는 전직이 어머니에게 뇌물로 받은 금을 드리다 꾸중을 듣는 일화 ③은 전직이 잘못을 깨닫고 왕에게 벌을 청하는 내용 ④는 왕이 전직의 어머니를 상주었다는 후일담이다. ①부터 ④까지는 모두 열녀전의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범』에는 『열녀전』에 빠짐없이 제시되는 논찬과 송 즉 논평부가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예로든 ‘제दन직모’ 뿐만 아니라 『여범』의 어디에서도 논찬과 송을 찾을 수 없다.²⁵⁾

『여범』이 유향의 『열녀전』을 거의 답습했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에 해당하는 인물의 행적만이 제시되고, 군자의 논평과 송이 생략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물론 조선 후기에 이르면 논평부가 생략된 인물전이 다수 등장하며, 『여범』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원사(元史) 열전에서는 논찬을 생략하고 인물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 형태가 흔히 발견된다. 이처럼 전의 형태가 점차 논찬이 생략되어 가는 방향으로 변화한다고 볼 때, 『여범』의 형식도 그와 동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역사서술에 있어서 되도록 저자의 의견을 노출시키지 않고, 독자 자신이 판단하게 하는 서술 방식을 취함으로써, 논찬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²⁶⁾ 다만 본고에서는 논찬과 송의 생략

25) 단 <열녀편> ‘절부뉴시’에 “뉴야쉬굴오티부인이절로빠나타난재만흐나막음이괴약호물두어브티일우라호되뉴시는결형이탕연호야친의뜻을상호디아니호되능히그절을일위우여이부측을조차종용이의예나아가니당부의어려운바를부인이헵헵니호호라지극호도다”라고 하여 논찬과 유사한 형식과 내용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이야기의 말미에 개인의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절부뉴시’가 유일하다.

26) 박정식, 『문화전통논집』 제3집, 경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5, 19쪽.

외에도 독자 자신이 텍스트의 주제 혹은 제시된 인물을 판단하게 하는 서술상의 특징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려고 한다.

3.1. 작품 내적 요소를 통한 주제 구현

먼저 논평이 생략된 『여범』의 결말부분을 두 유형으로 나누는 데에서 논의를 시작해보겠다. 『여범』의 종결 방식은 크게 후일담이 제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후일담이 제시되지 않는 이야기들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후일담이 없는 『여범』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동일한 성품을 입증하는 여러 개의 일화가 열거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유신의안해문시나히점어서과뵈되니부뵈기가호고져하니문시골오디일신의
이뵈닐부의붓그리는배라호물머시어미늙고즈식이어리니늘호야보르호리오호
고머리틀버혀밍서하니라(①)식어미눈이멀거늘문시양깃물호고눈을할터라
(②)식어미죽거늘친히흙을저영장하니라(③)(유신처)

‘효녀편’의 ‘유신처’는 젊어서 과부가 된 문 씨가 시부모에게 효도했다는 사실을 ① 개가시키려는 친정부모를 단념시키고자 머리채를 자른 일화 ② 시어머니의 눈이 멀자 그의 눈을 직접 훔은 일화 ③ 시어머니가 죽자 스스로 흙을 저 날라 장사를 지낸 일화 이렇게 세 가지 일화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한다. 이 때 세 가지 일화는 문 씨의 효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된 것이며, 이야기 안에서 대등한 위상을 갖는 것으로, 둘 중의 하나가 빠지거나 순서가 바뀐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①당경시번싱의안해되야아들회인이를나코지아비일죽으니그형잇듯을앗고
저후대경시골오디부인이두번남조보는네업스니번싱이비록죽으나대힘이이으

히이시니감히명을듯디못호리로다②형이이에그마니사름의게허호고거긱어미
병드렀다닐커리브르니경시니르러어미병업순줄을보고그속인줄을알고이에아
들을드리고도라갓더니③후의회인이년이십팔의죽으니경시탄호야닐오디내구
괴불셔죽고지아비죽고아들이죽으니의예오래살미업스리라스고울고죽으니라
(당번싱쳐)

위의 인용문은 남편이 일찍 죽은 뒤 아들을 키우다가 아들마저 죽자
울다 죽은 당나라 번생의 아내 이야기다. 이 이야기 역시 동일한 성격의
일화들이 나열되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먼저 번생의 아내는 남편이
죽고 친정 오빠가 개가시키려 하자 남겨진 아들이 있다고 이를 거절한다
(①) 오빠가 어머니의 병을 거것으로 꾸며 친정으로 오게 하고 다시 개가
시키려하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간다(②) 그러다 아들마저 죽자, “구
괴불셔죽고지아비죽고아들이죽으니” 오래 살 일이 없다며 삶의 끈을 놓
는다(③). 독자들은 그녀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남은 아들을 이유로 들
며 개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서, 그녀에게는 절대 개가할 뜻이 없으
며 또한 아들이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니 텍스트에서처
럼 곧 죽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여범』의 “널녀”편의 경우 대부
분의 이야기가 인물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경우에도 인물의 죽음
은 ‘당번싱쳐’에서처럼 인물의 성품을 뒷받침하는 여러 일화 가운데 하나
로 기능한다.

이와 같이 후일담이 제시되지 않는 『여범』의 이야기들은 『열녀전』을
비롯한 규훈서에서 논찬을 통해 명백하게 전달하려는 주제의식²⁷⁾을 유사
한 성격의 일화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내면화한다. 논찬의 경우 권
위 있는 텍스트 외부의 서술자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를 확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동일한 성격의 일화를 삽화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텍스트의

27) “(열녀전의) 傳記식 서술은 이후 등장하는 여훈서에 큰 영향을 미쳐 여훈서 서술
형식의 한 전형을 이루었으며, 여성 전기를 유교적 덕목을 중심으로 유형화함으로
써 유교가 지향하는 여성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연순, 앞의 글, 61쪽.

구조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후일담이 제시된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범』에서 후일담은 대체로 인물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내려지거나, 인물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장례를 치르거나, 신이한 일이 일어나 인물의 의로움을 입증하는 등의 형태로 제시된다.²⁸⁾ 즉 이러한 후일담은 인물의 행적을 서술한 뒤에 왕이 부인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이웃들이 제사를 지내는 등 인물의 어진 행동을 높이 평가하여 결국 이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가족이나 이웃들은 정성껏 장사를 지내고, 사당을 지어주기도 하면서 이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정을 받았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① 후한악양직길해서드른금을어드니그안히물리뒀더니면니가스승을츠자글
 빅호다가반년만의도라오나늘체그연고를무룬대양직굴오디오래나가생각하니
 다른뜻이업스디라체에에칼홀가디고뵈틀의가닐러굴오디이뵈누에실의셔나빅
 틀의이러흔실이짜하흔치의니르고흔치짜하굿치디아니햐드디여자외필이이
 시니이제내뵈를긋츠면전공이거긋거시오흔갓날만브리니이제부직빅호기를빠
 합서아름다운턱을일울거시니만일②똥도의업을폐흐면이뵈긋느니와다르리오
 양직안해말의씨드라다시오년만의도라오디아니햐햐혹이되고일흠을 일으니
 라후의도적이이서그안해를범코져햐몬져그어미를잡겨늘안해칼홀잡고난대
 도적이굴오디네날을 조차면가히식어미를살오고듯디아닌즉죽이리라③체양
 턴당탄흐고스스로먹딜러죽으니④도적이감동햐그식어미를브리고가니태쉬

28) 가령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향인이어옛비너거고기톡이너겨겨릿들이모다제흐고유스의청햐증왈종용스절이
 라하다”(오일계처)

“초왕이그슈절햐의이시물착히너겨이에제후의네로합장하니라”(식군부인)

“도적이감동햐그식어미를브리고가니태쉬듯고네로장하니라”(악양자처)

“외굴오디정너로다흐고스스로죽기햐네로뵈합장하니라”(진양위처)

“친척이참혹고불상이너겨각각지물을내여그아들과긋티지아빅브덤갓티장흐고향똥
 부뢰불상이너겨관가의고하니니별개결힘을도당의주햐햐똥닐방이라똥문햐시다”(정
 렬왕씨).

뚝고네로장흐니라(악양즈처)

그런데 위의 ‘악양즈처’에서도 알 수 있듯이, 후일담이 제시되는 이야기 역시 후일담이 없는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구성을 취한다. 악양자의 아내는 남편이 얻은 금을 뿌리치고(①),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려하는 남편을 깨우치고(②),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③). 이와 같은 일화를 통해 성품이 제시된 뒤에는 도적이 감동하여 시어머니를 살려주고, 태수가 장례를 치러주었다는 후일담이 제시된다(④). 후일담이 제시된 이야기는 앞서 후일담이 없는 이야기에 그에 대한 평가만이 덧붙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범』의 후일담은 『열녀전』의 논찬이나 송이 행하는 역할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제시된 일화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을 내리는 역할을 이들 후일담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본고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여범』에서는 입전된 여성의 행위에 대한 이와 같은 가치 부여가 이야기 내부의 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인정과 평가는 이야기 외부에 존재하는 사관이나 주석자가 객관적으로 내리는 평가가 아니라, 이야기 내부 인물에 의해 등장인물이 행한 도덕적 행위의 의미와 중요성이 밝혀진다는 점에서 『열녀전』의 논평과 구별된다. 요컨대 『여범』에서 등장인물에 대한 평가 혹은 보상으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들의 경우 대체로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들 또는 이야기 속의 인물들과 동일한 이야기 세계에 존재하는 이들이 평가의 주체라는 점에서 『열녀전』과 다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로는 『여범』에서 시가 쓰이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열녀전』의 시들이 대체로 『시경』의 시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문면에 드러내고 있다면, 『여범』 속의 시들은 대부분 등장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직접 지은 것으로 제시된다.

시를지어골오딘사라서는 집을 다 르게 하나 스즉 동혈 흐리라 날을 밋디아 니다 날
을 단대 불근 날 굿 틈 미 잇도 다 (식군부인)

시에골오딘 낭군의 은혜는 님 굿 티 엷고 첩은 어름 굿 티 몹으니 낭군의 황금이 이 시
되 첩이 디답 디아니 흐도 다 만 일 흐야 곱 위 연이 흐 말 이나 통 흐야 시면 반상의 뒤외로
온 등 잔을 디 희 었던 줄 미 드 리오 (노췌호처)

흐 디를 디 날 식 손가락을 베 무 러 피로 글을 지어 돌우 히 쓰 니 그 글의 골오 디 군왕이
되 업 스니 첩이 맛당이 지 앙을 님을 디 라 아 디 못 게 라 지 아 비 뇨 츠 들어 는 날 보 리오 첩의
몸이 도로 어느 새 를 향 흐야 오 리오 두 줄 눈 물을 즈로 듯 고 흐 번 디 흐 는 시 림 흐 는 눈 섭
은 즈 가 여 지 아 니 흐 앳 도 다 먼 니 집을 브 라 니 어 는 곳 고 존 망이 지 진 실 로 슬 프 도 다 드
디 여 언 덕 아 래 는 러 더 죽 으 니 석 상의 피 지 금 의 오히 려 잇 더 라 (남 희 민 처)

이처럼 『여범』에서는 등장인물이 자신의 생각과 심정을 시로 직접 표현하는 방식이 매우 자주 사용된다. 즉, 작품 속에 제시된 시는 대개 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인물들을 그 발화기원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실은 『여범』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제시된 것 이외의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가령 『시경』의 시라면 그와 관련된 고사와 같은 배경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등장인물이 자신의 심경을 노래한 것이라면 텍스트에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도 독자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드시 제시된 시가 어느 책에 적힌 것이며, 어떤 역사서에 기록된 인물의 고사와 관련된 것인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범』의 후일담이 대개 등장인물의 주변인들을 통해 제시되고, 등장인물의 생각이 직접 지은 시들로 표현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제시된 이야기만으로 자연스럽게 글의 주제를 파악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두 가지 결말 유형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여범』의 특징은 텍스트의 의미를 유발하는 기제가 모두 텍스트 내적 요인에 있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서사 구조와 인물의 행적에 대한 텍스트 내부 인물의 평가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이전의 사관이나 주석자가 인물에 대해 내린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와 같은 방식은 텍스트에 입전된 인물에 대해 사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여범』을 읽으면서 이러한 주제 또는 해석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어떤 특별한 사건의 궁극적 의미가 그것이 가리키는 영원한 보편적 원리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텍스트 외적 인물 혹은 문헌의 권위가 요구되는 양식의 자리에, 사건의 궁극적 의미를 기술된 텍스트 자체에서 찾아야만 하는 양식이 놓이게 된 것이다.²⁹⁾ 요컨대 『여범』은 주석이나 논평대신 텍스트 내적인 구조와 이야기 세계 내부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입전인물들에 대한 규범적 해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규훈서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독해될 수 있는 텍스트이다.

3.2. 발화기원의 소거를 통한 이야기 세계의 형성

‘태사공왈’로 시작하는 『사기』 논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자 자신의 이름이나 벼슬이 아니라 3인칭 서술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의견을 최대한 객관화하여 전달하기 위한 장치로서,³⁰⁾ 『열녀전』에서도 ‘군자’를 내세워 논평을 제시하는 것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논찬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가치판단, 시비분별, 권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의 기능을 하므로, 역사적 시비와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 서술자는 개인적인 정보를 텍스트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다.³¹⁾ 하지만 『여범』에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논찬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규범적 평가나 해석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여길 수도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사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록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29) 주석은 어떤 특별한 사건의 궁극적 의미가 그것이 가리키는 영원한 보편적 원리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양식이다. 그러므로 주석이 사라진 텍스트는 사건의 궁극적 의미를 보편적 원리가 아닌 기술된 텍스트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루샤오핑, 앞의 책, 99~100쪽.

30) 백진우, 「한문 야담문학 속 논평의 양상과 기능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6집, 183쪽.

31) 위의 글, 185쪽.

있을 것이다. 텍스트 표면에 논평하는 이를 아예 생략하여 인물의 행적을 논평 없이 제시함으로써,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달하는 듯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평 또는 주석이 생략되었다고 하여 『여범』에서 서술자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논평이나 주석대신에 우리는 ‘높임법’을 통해 『여범』의 서술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범』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된 『열녀전』에서는 106명의 여성들을 모의, 현명, 인지, 정순, 절의, 변통, 열폐로 분류하고 있다.³²⁾ 이에 비해 『여범』은 ‘성후’ ‘모의’ ‘부계모’ ‘효녀’ ‘현녀’ ‘변녀’ ‘문녀’ ‘부무녀’ ‘덩녀’ ‘널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³³⁾ 본 장에서는 『여범』에서 『열녀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성후’를 첫 번째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여범』에 분류된 유형들 가운데 ‘성후’가 유일하게 신분에 따른 항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후’ 항목이 서술자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흔적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게 검토하려 한다.

『여범』의 서술자는 『열녀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성후’ 항목을 따로 설정하고 있으며, 텍스트에 입전된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오직 ‘성후’편에

32) 이 7가지 유형은 어머니로서 모범이 된 여성, 아내로서 현명함을 드러낸 여성, 부부간의 신의·혈연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실천한 여성들과, 지혜롭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이 뛰어나며, 국가나 가문을 위기에 빠뜨린 여성들로 크게 구분되는데, 이는 사회적 관계에 충실하여 모범이 된 인물 유형-모의·정순·절의-과 긍정 혹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을 십분 발휘한 행위로 인해 입전 대상이 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열녀전』에는 도덕적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이들과 행위의 결과로 평가받는 인물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33) 이들 항목 가운데 도덕적 의무와 관련된 부류는 ‘모의’ ‘부계모’ ‘효녀’ ‘덩녀’ 이고, 행위의 결과와 관련된 부류는 ‘변녀’ ‘문녀’ ‘부무녀’ ‘널녀’이다. 특이한 점은 ‘성후’ 항목인데 6개(부계모, 부무녀까지 포함하면 8개) 항목 가운데 유일하게 신분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열녀전』에서는 어머니 또는 아내와 며느리 등의 역할에 따른 구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처럼 특정한 신분에 속한 이들을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범』을 비롯하여 『규합총서』 『여범첩록』 등 비교적 후대에 쓰여진 열녀전에서는 ‘성후’ 유형의 항목이 존재한다.

분류된 인물들에 대해서만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태스는 무왕지피시니우후유신스시의녀라인명유덕호사정일호시고단장호
 신신문왕이가지호사친히위예가마즈실시조주의냥호신이라드르신매밋쳐는태
 강과태임괴괴이샤도석의근노호샤이진부도호신이라십삼삼남호사곡진이꺾
 치샤꺾춤내쥬덕을일으스니덕이등외예괴지시고교혜원근의형호니라(밑줄필자)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여범』에서 서술자는 입전 인물들 가운데 ‘성후’에 실린 황후들에게만 존대를 사용하고 이를 전달받는 독자들에게는 평어를 쓴다. 텍스트에서 일관되게 평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물에만 존대하고 나머지 인물들과 피서술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서술자가 스스로를 어떠한 자리에 위치시키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는 시상이나 법, 상대높임법, 서법 등의 문법 범주를 통해 발화 기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³⁴⁾ 즉 높임법은 텍스트의 서술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로서 ‘발화흔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텍스트에서 서술자는 ‘성후’ 항목에서만 입전 대상에 주체높임법을 사용함으로써 눈에 띄는 발화흔적을 남긴 것이다. 그 흔적을 통해 우리는 『여범』을 편찬한 선희궁 이 씨가 중국의 역사 속 태후와, 텍스트에 등장하는 궁궐 밖 일반 여성들 그리고 『여범』의 가상 독자들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논평이 사라지고, 서술자가 역사 속 한 개인으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은 당대 남성 사대부들의 열녀전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여범』에서는 논평이 사라지지만 비슷한 시기 남성 사대부들이 한문으로 기술한 열녀전에서 논평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남성들의 열녀전에서 논평은 글쓴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조선 전기 烈女傳 논평부는 ‘史臣曰’과

34) 김병문, 「발화기원 소거로서의 언문일치체의 의미에 관하여」, 『사회언어학』 제16권 2호, 91쪽.

같이 시작하여 사관의 입장에서 열행을 밝혀 이를 기리고자 한 것이었다면, 조선후기 열녀전에는 ‘越松外史’, ‘黃胤錫曰’, ‘西河 任憲膺曰’, ‘本族 鄭在弼曰’, ‘恩津 宋炳華曰’, ‘高興 柳麟錫曰’ 등에서처럼 자신의 성이나 본관 또는 법명을 사용하여 인물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³⁵⁾

‘太史公曰’ ‘史臣曰’ ‘野史氏曰’ 등의 이름으로 논평을 하는 경우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가 강하다면, 사대부 남성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인물의 행위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은 주관적인 감상과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조선 후기 남성의 열녀전에서 사신의 자리에 서술자 개인의 이름이 나타나는 현상과 『여범』에서 주체 높임법을 통해 서술자의 신분이 드러난 사실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남성 사대부의 열녀전과 『여범』, 이 둘 모두 전대의 『열녀전』이나 규훈서와는 다르게 서술자의 개인적 면모가 드러나는 텍스트인 것이다.

하지만 『여범』에서 높임법이 언제나 서술자의 흔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의 흔적으로 보이는 주체높임과는 다르게,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나타나는 상대 높임은 서술자의 흔적을 지우는 역할을 한다. 『여범』에서 인물의 발화는 상호 주고받는 대화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이와 같은 표현은 자연스러운 대화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묻고 답하는 방식을 빌어 글을 쓰는 이른바 문답체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³⁶⁾ 물론 텍스트에 ‘글오덕’, ‘니르거늘’ 등 인용을 알리는 표지가 존재하며, 이것이 서술자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접인용일 경우에는 인용문의 종결어미가 그에 맞게 변화할 텐데, 『여범』에서는 인용표지 ‘-하고’³⁷⁾ 앞에 인용된 문장의 종결어

35) 강영숙, 『한국열녀전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104~105쪽.

36) 권보드래,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174~175쪽.

37) 인용동사가 피인용문에 전치한 경우, 이 구조에 뒤 절과 연결되기 위해 형식동사 ‘-하’가 사용된 경우, 인용동사가 피인용문에 후치한 경우가 있으며, 현대국어로 올수록 뒤의 형식이 많이 나타난다. 『여범』의 경우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형식으로

미가 변화하지 않는다. 즉, 제시된 등장인물의 발화문 종결어미가 ‘-하고’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여범』의 대화제시는 간접인용보다는 직접인용에 가까운 방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⁸⁾

또한 『여범』에서 인물들은 상대높임법을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어, 인물들 간의 대화는 서술자와는 별개의 독립된 세계 안에서 자체적인 의미를 갖는 자립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³⁹⁾

덩강은제나라님군의 쫓이오초쇼왕의부인이라쇼왕이노리흐라가고부인을
 점디예다가두엇더니대슈표류흐야늘왕이스자를보내어부인을마자오라흐되
 고신보를보내디아니흐니부인이닐오디왕이언약흐시되브로괴되면부디신보를
 보내마흐시더니스재신보를아니가져와시니내조차가디못흐리라스재닐오디이
 제물이거룩이드러오니노라가신보를가져오느라흐면못밧출가흐느이다부인이
 닐오디첩은드르니덩녀지의언약을일티아니흐다흐니내절을딕희려흐니스자를
조차가면일덩살고이시면일덩죽을줄알건마는언약을브리고의롤니져브리면사
라셔도죽으니만못흐리라흐니스재신보가자라간스이의점디물허지니부인이죽
 은디라왕이탄흐여닐오디절을딕히여죽고구차히사디아닛는거시덩녀라흐고일
 흠을덩강이라흐니라(초쇼덩강)

성데후덩의노름노리흐실시첩여로더브러흔년의트려흐시거늘스양흐야골오
 디네그림을보니현성지군은다용흔신해것티되섯고삼디말왕이야고이는겨집이
 이시니이제흔년을트고져흐시니다곳트니잇가첩예골오디첩은드르니스싱이유

직접인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주호, 『인용동사의 문법적 고찰』, 『우리말 글』 37, 2006, 146~147쪽.

38)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서 구문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용문에서인데, 그 중 큰 차이로는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에서 이른바 인용표지라고 불리는 “-고, -라고, -하고”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피인용문과 인용동사의 순서 등이 다르다는 점이 있다. 그 차이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NP - 인용동사 - [피인용문]] ② [NP - 인용동사 - [피인용문] - <(-)>] ③ [NP - [피인용문] - 인용동사], 위의 글, 146~147쪽.

39) 김병문, 앞의 글, 92쪽.

명하고부귀지던하니올흔일을닷가도오히려복을넉디못흐거든샤특흔일을하야
 무어슬브라리오또귀신으로하야꿈이는일이이시면서사오나온사름의하는말을듯
 디아닐거시오아는일이업슬작이면하다무어시유익흐리오이러므로하아니하니
이다(한반첩여)

쥬션왕의강후는 제국넘군의너리어덜고덕이겨샤일이네아니어든니르디아니
 흐시며형실이네아니어든움죽이다아니흐시니션왕이일죽일누어늦게야니르시
 거늘강휘빈혀를썩히고죄를기드려그보모로하야곰왕기말을통하야골오디첩의
불지로음흔모음을빈디라군왕으로하야곰네를일허늦게야도회흐시기의니르니
군왕이식을즐기시고덕을닛기르보니진실로식을즐기면반드시샤치를도화하고
욕심을궁진히흐미난의니러나는배오난의니러나는근본이첩으로조차나니감히
첩의죄를청흐는이다왕이골샤디과인의불덕이실로스스로허물이나니부인의죄
아니라하고정스의브즈러니하야일즉도회하야못춤내동흥의일흠을일으시니라
 (쥬션강후)

위의 예문에서 밑줄친 대화부분을 보면 아직 완전한 직접인용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첩” “과인” “부인” 등의 어휘가 인물들 간의 대화에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술자가 대화자들이 서로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황을 재현하려 했음을 말해 준다. 또한 평서문의 “아니하이다” 의문문의 “궂트니잇가” 등의 상대높임 선어말어미 ‘이’와 ‘잇’을 통해 인물들이 대화상황에서 서로에게 높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화자가 자신을 낮추거나 상대를 높이기 위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인용 문장에서 나타나는 상대높임법은 발화를 은폐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상대높임법은 발화기원을 소거하는 효과를 가지며 발화기원이 소거된 발화문은 그 어떤 외적인 요인을 참고할 수도 없고, 또 참고할 필요도 없는 자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대화 형식, 즉 서술자의 매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등장인물의 발화가 직접인용으로 제시되는 것이 국문 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본다. 한문 텍스트가 한글 텍스트로 변용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상대높임법이 쓰인 것은 한문 텍스트와는 다르게 『여범』이 등장인물들의 이야기 세계와 서술자의 이야기하는 세계를 구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술자가 의도 했든 하지 않았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언어로 언어를 전달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즉 대화 상황이라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다는 인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일상어를 그대로 재현하는 데 한자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⁴⁰⁾

정리하면 『여범』에 사용된 상대높임법은 이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른 텍스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재인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듯한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앞 장에서 살펴본 규훈서들이 객관적인 서술자가 다른 규훈서들을 재인용하는 방식으로 역사 속 인물에 대한 규범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라면, 『여범』은 역사 속의 한 개인이 독자에게 자신이 아는 이야기를 재현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구현하는 텍스트이다.

4. 맺음말

우리 고전 작품들 가운데 특히 한문 텍스트들은 흔히 이전 시기의 텍스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용사’⁴¹⁾ ‘전거수사’ ‘편철성’ 등의 용어로 불리면서, 표의문자로서의 한자의 고유한 특성과 인문 전통에 대한 소양을 지닌 특정 계층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⁴²⁾ 본고의 2장에서 검토한 『열녀전』 『내훈』과

40) 권보드래, 앞의 책, 173쪽.

41) 위의 책, 49쪽.

42) 용사에서의 일 또는 사례는 전대에 일어났던 사실이라기 보다는 이전 시기의 텍스

같은 규훈서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텍스트들이다. 이 규훈서들은 전고 즉 선행 텍스트를 명시함으로써 사실의 재현이 아니라, 전범 텍스트를 인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다. 텍스트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선행하는 텍스트와 관련되며, 한문으로 된 규훈서들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쓰고 읽힌다. 작품에 등장한 인물과 그들의 발화는 그 기원을 ‘현실’에 위치시키지 않고, 이미 기술된 어떤 현실, 즉 일련의 복사본만이 끝없이 발견되는 ‘텍스트’에 두는 것이다.⁴³⁾

물론 이때 텍스트의 세계는 한문을 읽고 쓸 줄 알며, 이 텍스트들이 참조한 전고들을 이미 알고 있는 이들만의 세계이다. 조선 사회에서 이와 같은 텍스트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지극히 일부의 식자층이었다. 때문에 원래의 텍스트에서 사용된 맥락과 의미의 일부, 심지어 전부를 알고 있는 이들만이 이 텍스트의 생산자 혹은 수용자가 될 수 있었다.⁴⁴⁾ 그러므로 『규훈서』의 텍스트성은 일정한 교양을 갖춘 이들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반면에 『여범』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독해될 수 있다. 유향의 『열녀전』은 사관의 논찬과 『시경』의 시를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지만, 『여범』에서는 텍스트가 참조 하는 전고들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 논평이 아니라 플롯으로, 외부의 인물이 아니라 작품 속 인물들의 평가로, 『시경』의 시가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직접 지은 시들로 작품의 주제가 구현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고를 인용한 표지가 상당부분 생략되고, 인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해석 또한 자취를 감춘 데다, 전거를 몰라도 충분히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는 면에서 『여범』은 이전의 규훈서들과는 다른 독해 방식 즉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로 이 작품을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트에 실려 있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용사는 현실 세계와는 무관하며, 오직 선행하는 텍스트와만 관련된 문제이다. 조현우, 『고전서사의 허구성고 유가적 사유』, 보고사, 2007, 46쪽.

43) 롤랑 바르트, 김웅권 역, 『S/Z』, 동문선, 2006, 235쪽.

44) 위의 책, 49쪽.

또한 『여범』의 높임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텍스트에 최소한 두 계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후에게 높임을 사용하고 다른 입전 대상 및 텍스트의 가상 독자에게는 평어를 쓰는 서술자는 분명 한문으로 된 중국의 역사서 또는 규훈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이일 것이다. 그러므로 『여범』은 서술자와 유사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한 텍스트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상대높임법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직접인용의 방식 즉 대화상황의 재현은 『여범』이 한글 텍스트에 적합한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인용으로 대화 상황이 재현됨으로써 『여범』의 이야기를 중국의 사서나 규훈서의 재인용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재현 혹은 모방인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범』은 한문으로 된 중국의 역사서 혹은 규훈서의 내용에 익숙한 이들의 언어, 즉 이 글의 서술자가 사용하는 또는 이 글의 서술자와 동일한 독서 경험이 존재하는 이들의 언어와, 한문 텍스트의 독해와는 거리가 먼 즉 『여범』이 참고한 텍스트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지 않은 이들의 언어가 뒤섞여 있는 텍스트라고 하겠다.

독자들 가운데 일부는 『여범』의 작자처럼 전고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테며, 또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여범』을 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 모두는 『여범』에 기술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여범』은 기존 규훈서의 독해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의존적 방식뿐만 아니라, 탈상황맥락적인 방식으로도 독해가 가능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즉, 『여범』은 전처럼 전고의 의미를 떠올리며 작품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 텍스트인 한편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에 관한 사전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읽고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 텍스트이다.

요컨대 『여범』은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입전된 텍스트인 동시에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이다. 텍스트 내부에 최상층부터 최하층까지의 인물들이 실려 있듯이, 그것을 독해하는 것도 기존의 규

훈서들 또는 한문 텍스트의 독해규범에 익숙한 비교적 상층의 여성들에서부터 이러한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즉 한글 텍스트를 읽는 데에만 익숙한 이들에게까지 모두 열려있다.⁴⁵⁾ 그러므로 『여범』은 상호텍스트성의 원리가 충실히 실현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은 수많은 ‘텍스트들’ 또는 목소리들 가령 의식적인 저자의 의도, 무의식적인 욕망, 현재와 과거의 사회적 함의들이 개별 작품들 속에서 서로 만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작가가 의식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미는 복잡한 상호텍스트성의 일부분만을 결정할 뿐,⁴⁶⁾ 이와 같은 다성적인 글쓰기는 그것 자체로 지배적인 의미 체계에 도전한다.⁴⁷⁾ 『여범』은 한문 텍스트를 잘 알고 있지 않은 이들도 충분히 작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됨으로써, 한문 텍스트의 권위, 역사 속 인물들에 대한 배경지식 그것 자체가 지식 권력이던 사회에 도전한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는 텍스트의 저자가 이 모든 것을 의도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저자가 한글 텍스트로 열녀들의 전기를 다시 쓰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효과가 산출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여범』에는 한문 텍스트를 읽고 쓰는 방식뿐만이 아니라 한글 텍스트를 읽고 쓰는 방식, 즉 탈맥락적인 독해방식이 새롭게 적용되었으며, 이 두 가지 방식의 대화적 상황은 전자의 방식이 지배적이던 체계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후자의 탈맥락적인 독해 방식으로 인해 텍스트의 등장인물들은 한문 텍스트들이 참조했던 텍스트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를 모방한 허구 세계로 발화의 기원을 옮기게 되었으며, 이는 ‘일상어의 재현’이라는 한글 텍스트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규훈서들과 구별되는 『여범』의 특성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45)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작품의 내적인 구조와 특질을 통해 입증하고자 했으나, 이는 『여범』을 읽었던 실제 향유층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와 관련된 논의는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46) 켈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228~229쪽.

47) 위의 책, 257쪽.

참고문헌

기본자료

- 선희궁 이 씨, 『여범』(대제각 영인판, 1977; 소재영 역주, 형설출판사, 1981)
송철의·이현희·장윤희·황문환, 『역주 오륜행실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빙허각 이 씨, 정양완 역주, 『규합총서』, 보진재, 2008.
『어제내훈』, 『조선시대의 규범서』, 민속원, 2000.
유향, 이숙인 역, 『열녀전』, 예문서원, 1996.
이숙인 역주, 『여범첩록』, 『여사서』, 여이연, 2003.

단행본

- 권보드래, 『한국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0.
유협, 성기옥 역, 『문심조룡』,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0, 63쪽.
조현우, 『고전서사의 허구성과 유가적 사유』, 보고서, 2007.
최혜진, 『여성 영웅의 서사적 전개-여범』, 『규훈문학 연구』, 역락, 2004, 125
~166쪽.
노효봉,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역, 『역사에서 허구로』, 길, 2001, 99~100쪽.
Barthes, Roland, 김웅권 역, 『S/Z』, 동문선, 2006, 235쪽.
Foucault, Michel,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 1994, 27쪽.
Morris, Pam,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228~229쪽.

논문

- 강영숙, 『한국열녀전연구』, 영남대 박사학위논문, 2010, 1~153쪽.
강영숙, 『조선조 열녀전의 구성방식과 문학사적 의의』, 『정신문화연구』 30
권2호, 2007, 119~144쪽.
곽정식, 『열전양식의 구성적 특질에 관한 연구』, 『문화전통논집』 제3집, 경
성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95, 22~44쪽.
김경미, 『『열녀전』의 보급과 전개』, 『한국문화연구』 13, 2007, 51~82쪽.

- 김병문, 『발화기원 소거로서의 언문일치체의 의미에 관하여』, 『사회언어학』 제16권 2호, 81~103쪽.
- 김연순, 『조선시대 여훈서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6, 1-205쪽.
- 김연순, 『조선후기 사대부 女訓書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제28권 1호, 2006, 27~61쪽.
- 백진우, 『한문 야담문학 속 논평의 양상과 기능에 대하여』, 『고전과 해석』 6집, 2009, 179~202쪽.
- 안주호, 『인용동사의 문법적 고찰』, 『우리말글』 37, 2006, 143~169쪽.
- 윤분희, 『규훈서 『여범』 연구』, 『여성문학연구』 11, 2004, 319~345쪽
- 이호권, 『조선시대 한글 문헌 간행의 시기별 경향과 특징』, 『한국어학』 41, 83~114쪽.
- 조현우, 『행실도 열녀편 도상변화의 문화적 의미』,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 50, 2011, 333~357쪽.
- 최혜진, 『『여범』의 여성주의적 독해-작가와 서술의식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3집 1호, 2004, 41~64쪽.

Abstract

A Study on Ways of Reading *Yeobeom*

Kim Jungkyung

This paper has been focused on identifying the feature of *Yeobeom*. In order to identify the reading methods, the paper has been proceeded with the formal feature within the female normative books.

On chapter 2 the paper intended to find out the narrational features of *Yeolyeojeon* and other normative books. As a result, the paper find out that these books need a contingency reading.

On chapter 3 the paper intended to find out the features of the reading meathod of *Yeobeom*. As a result the paper find out that the specificity of *Yeobeom* is intertextuality or polyphony. Readers understand this book in a way of the contingency reading or in a way of the a decontextualized reading.

Here, the paper suggest that the ways of reading and writing in chinese characters and the ways of reading and writing in Hangul are coexist together in *Yeobeom*.

Key words : *Yeobeom*, *Yeolyeojeon*, a contingency reading, a decontextualized reading, an honorific title, a speech origin, intertextuality

- 본 논문은 10월 31일에 접수되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11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